

협회 4주년기념 정책 심포지엄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9월 10일 협회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항공기산업의 당면과제와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증권감독원빌딩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통상산업부등 정부관계자를 비롯하여 업계·연구계·학계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통상부 추준석 차관보는 치사를 통해 '2000년대에는 대형여객기 국제공동개발에 Major Partner로 참여하는등 세계 10대 항공기산업국으로 진입토록 할 계획' 이라고 밝히며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협회 이대원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선 국내 산업계는 현재 추진중인 각종 개발산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21세기는 항공우주분야의 완성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해야 한다' 며 항공기 부품·소재·엔진

분야의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산업저변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항공기 부품·소재·엔진의 국산화 방안을 주제로 통상산업부 박양우 항공우주공업과장을 비롯하여 기계연구원 김학민 본원장,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장세탁 소장,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이동호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는 협회 광병구 상근부회장의 사회로 항공우주학회 홍창선 회장, 항공우주연구소의 최동환 단장,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주훈 부연구위원, 산업연구원의 송병준 실장, 항공기 부품·소재 국산화 추진위원회의 이득순 위원등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광병구 상근부회장은 토론 총평에서 '항공기산업은 종합시스템 산업이며 높은 부가가치, 기술과급효과등 국가적으로 매우 유익한 산업이나 위험부담이 크고 막대한 투자재원과 회임기간의 장기성등으로 민간기업의 자생력만으로는 산업발전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히고 '오늘의 이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창립 4주년 기념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항공우주산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를 대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상에 5명, 항공우주협회장상에 10명, 감사패수여에 5명에 대한 포상식이 있었다.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항공기 산업의 당면과제와 육성전략' 을 주제로 심포지엄행사를 개최했다.

판보로에어쇼 성황리에 개최

판보로(Farnborough)국제에어쇼가 지난 9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영국의 판보로시에서 전세계 항공우주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항공우주관련 1,164개업체가 참여하고 전세계 약 5만명의 비즈니스맨이 관람한 동 행사에서는 보잉, 에어버스사등이 약 125억달러 이상의 항공기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보잉 및 에어버스사의 초대형여객기 개발 프로젝트, 유럽 4대기업 통합등 굵직한 계획들이 동 행사를 통해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에어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항공기 판매로 지난 '94년판매액인 80억달러에 비해 약 45억달러가 증가했다. 민항기부문의 판매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보잉사는 75대분 75억달러상당을 에어베를

린(Air Berlin), AWAS, 브리티시에어웨이즈(BA) 등에 판매하였으며 경쟁사인 에어버스사는 아시아나 항공에 A321기종 18대등 모두 25억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러나, 군용기부문의 판매는 위축되었는데 러시아의 Su-27기가 중국과 베트남에 판매되었다.

한편 여객기 부문의 최정상을 고수하고 있는 보잉사와 에어버스사는 각각 수퍼점보여객기의 개발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보잉의 경우 747기종의 파생형인 747-500X(460석), 747-600X(545석), 그리고 개발고려중인 747-700X(700석)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에어버스는 550석급이상의 A3XX기종을 오는 '98년부터 개발, 2003년에 최초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기종에 장착될 엔진은 롤스로이스사의 8만파운드급 트렌트(Trent)900엔진이다.

보잉, 747-700X개발...A3XX-200에 맞서

미국의 보잉(Boeing)사는 유럽의 에어버스 인더스트리(Airbus Industrie)사가 내놓은 탑승인원의 수가 월등히 큰 A3XX-200기종에 대응하기 위해 -700기종으로 개조된 차세대 747기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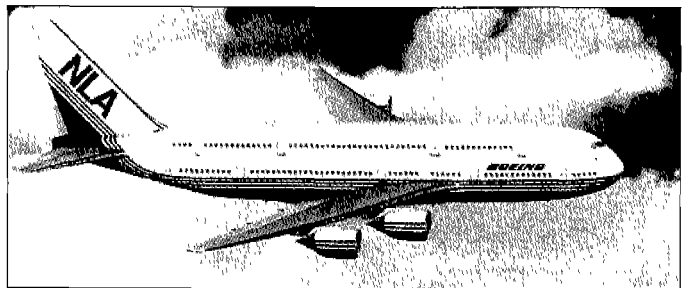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작은 747-600X보다는 에어버스사의 A33XX 스트레치기를 기다리도록 예상 커스터머들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에 비해, 보잉사는 3개 클래스로 약650명을 탑승시킬 수 있는 747기의 사양을 몇 항공사들에게 브리핑했다.

-700X기는 새로운 날개와 -500X/-600X의 랜딩기어가 사용되리라 예상되나, 완전히 새로운 초-고탑승용량의 동체가 쓰

일 것이다. 동 항공기는 A3XX기가 나온 4년후인 2007년에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항공사들이 2001년에 인도가 시작되는 보잉사의 항공기 -500X/-600X 기종에 기준을 맞추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보잉사는 처음에는 에어버스사와 초대형 항공기 공동개발(VLCT)을 고려했으나 '95년 초 진행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되었다.

한편, 이번 3가지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항공기 개발비용은 120-150억불로 추정된다.



삼성항공, 세계 항공우주 업체랭킹 33위

전세계 항공우주업체중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항공우주부문을 매출 228억불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195억불을 기록한 보잉사로 미국이 전세계 항공우주

시장에서 아직도 견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작년 록히드사와 마틴사가 합병한 후 또다시 로랄사를 흡수함에 따라 그동안 선두를 독점해 오던 보잉사를 제치고 새로운 판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영국의 Flight Intl.지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세계 항공우주산업체 베스트 100'에서 선정된 이 순위는 관련 업체의 매출액과 투자등 '95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삼성항공이 33위에 랭크됐다.

이 기록에 따르면 삼성항공은 매출액 15억 2백만불에 매출신장율이 43%로 지난해 41위에서 33위로 8계단 올라섰다.

THE EMERGING TOP 20 Likely 1996/7 post-merger rankings			
Group	Country	Aerospace sales (\$m)	Relevant acquisition/merger information
1 Lockheed Martin	USA	27,000	Acquired Loral aerospace/defence units (early 1996)
2 Boeing	USA	25,500	Acquiring Rockwell defence/aerospace units
3 McDonnell Douglas	USA	13,000	
4 Aerospatiale/Dassault	France	12,000	Merger due by mid-1997
5 Hughes Electronics	USA	9,800	Acquired Magnavox (Dec 1995) and OAE Link
6 British Aerospace	UK	9,000	
7 Northrop Grumman	USA	8,600	Acquired Westinghouse Defense & Electronic (March 1996)
8 United Technologies	USA	8,500	
9 Raytheon	USA	8,000	Acquired E-Systems (May 1995)
10 Daimler-Benz Aerospace	Germany	7,500	Withdrew from Fokker (Feb 1996) and Dornier Luftfahrt (Aug 1996)
11 General Electric	USA	6,700	
12 Thomson-CSF	France	6,000	Privatisation pending
13 AlliedSignal	USA	5,400	Acquired Textron Lycoming engine division (1994)
14 GEC	UK	5,000	Acquired VSEL (1995)
15 Rolls Royce	UK	4,100	Acquired Allison Engines (March 1995)
16 Mitsubishi Heavy Industries	Japan	4,000	
17 Finmeccanica	Italy	3,800	Selling SIAI Marchetti to Aermacchi and other disposals pending
18 Textron	USA	3,400	Selling Aerostructures to Carlyle
19 Alcatel-Alsthom	France	3,350	Likely rival bidder to Lagardere for Thomson-CSF
20 Snecma	France	3,300	Negotiating sale of Messier-Bugatti brakes and may lose SEP

합병이후 예상되는 1996/7년의 톱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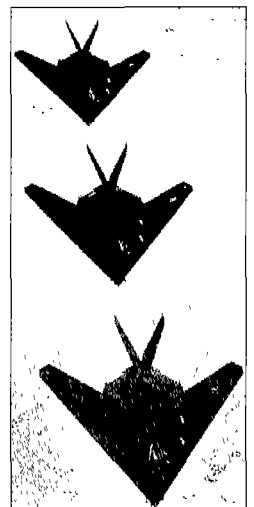
미 공군 전투기 개량사업, 예산삭감으로 난항

미 공군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전투기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개량사업에 배정된 자금이 거의 30%나 삭감됨에 따라 미 공군에 의해 '95년에 처음 제시된 '전투기 배치 계획(FICOP)'이 축소, 재조정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록히드마틴사의 F-16기로 이 외에도 각종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려던 계획이 취소되었다.

계획되었던 동사의 F-117기의 스텔스 업그레이드는 취소되거나 항공전자장비 및 시스템의 재조정으로 대체되었다.

최근의 FICOP 계획의 축소는 맥도널더글라스(MD)사의 F-15 계획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 운용중인 117대의 F-15A기 업그레이드는 취소되었고 현재 운용중인 미 공군의 400대 이상의 F-15C/D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스텔스기의 개량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